Entertainment p/13

김우빈 하루 계란 한판 꿀꺽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Entertainment p/18

강소라-이제훈 다정샷 공개

택시 협상 결렬 내일 운행중단

NEWS p/02

채용시장 '스위치형 인재' 인기

CAREER p/10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제2673호 www.metroseoul.co.kr

교차로 꼬리물면 캠코더 '찰칵' 어제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에서 경찰이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촬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 10곳에서 꼬리물기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 다음달 18일 이후에는 단속 지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주된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과 녹색 신호라도 교행 혼잡 시 교차로에 진입한 '진입교차로통행위반'(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횡단보도 위 정차 등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이다. /연합뉴스

손님 뚝! 동네사장님들 한숨 푹푹

자영업자 창업 18개월 만에 감소세… 베이비부머까지 가게 오픈 외면

#지난해 9월 약 1억원의 창업비용을 들여 서울 응암동 서부병원 인근에 감자탕집을 개업한 김창현(42)씨는 요즘 죽을 맛이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은 뚝 끊어졌는데 식재료 비용은 올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게 문을 열었던 지난해만 해도 점심·저녁에 테이블이 두 번 정도는 돌았는데, 요즘은 한 번 돌리기도 어렵다"면서 "채소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익을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 가게에 있는 테이블은 모두 16개. 창업 8개월 만에 회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영업자의 현황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들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지수(BSI)는 1월 65.5로, 전달인 지난해 12월보다 24.3포인트, 1년 전보다 17.3포인트나 급락했다. 체감경기 BSI의 1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에 54.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망도 우울하다. 2월 예상 경기 BSI는 83.6으로 전달보다 10.1포인트 떨어졌다.

자영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취업자 4명 가운데 한 명꼴인 자영업자들은 빚 부담도 많고 경기에 민감해 우리 경제의 전통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또 자영업의 위기는 퇴직을 앞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의 비상탈출구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이미 체감경기 악화로 자영업에서 인력 유출이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1000명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는 2006년 5월부터 5년 넘게 줄었다가 베이비부머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2011년 8월 증가추세로 전환됐었다. 당시 직장을 그만둔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음식·소매업에서 창업에 나섰다. 하지만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 쇠락 분위기가 뚜렷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흥달 소장은 "내수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자영업자들은 언젠가 우리 경제의 적단이 돼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연체율 증가세로 전환

자영업 대출에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대출로 창업에 나섰다가 이자도 못 갚을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25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9%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연체율이 같은 기간 각각 0.15%포인트, 0.26%포인트씩 올라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가팔랐다.

조기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장사가 안 돼 빚만 남긴 채 사업을 접는 '악순환의 그늘'이 깊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연착륙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을 다른 곳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빚 부담 완화는 물론 여가나 문화, 보건복지 분야 등 신규 분야 수요 창출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설연휴가 끝난 지난 12일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민 평균 출근길 11km 42분 걸린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출근거리는 11.10km로 41.5분이 소요되며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수도권 가구 19만8000세대를 대상으로 벌인 '수도권 주민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자 1명은 하루 2.61회에 걸쳐 8.9km를 이동했으며 한 번 이동할 때 평균 1.2회 환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경기도 전체 대중교통 분담률은 2010년 기준 64.3%로 2006년보다 2%포인트 증가했으며 승용차 분담률은 24.1%로 2.2%포인트 감소했다.

대중교통 수단별로는 지하철·철도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는 28.1%, 택시는 7.2%를 차지했다. 2006년보다 지하철·철도는 1.5%포인트, 택시는 0.9%포인트, 버스는 0.5%포인트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이 시간대 지하철·철도는 44.0%, 버스는 28.9%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내부 대중교통 분담률은 2010년 67.0%로 2006년보다 7%포인트 증가했고, 승용차 분담률은 19.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채현준기자 eleven@

남양유업 슈퍼갑 횡포

제품강매 등 폭로하자 대리점 계약 파기… 네티즌 '불매운동' 확산

"정말 못 봐주겠네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우리 다같이 남양유업 불매운동 합시다."(ID 새로운시작)

남양유업이 일부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됐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다음 아고라에는 '남양유업의 비인간적 태도'란 제목으로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미 6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청원에 찬성했다. 이 아고라 내에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범주와 가족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는 글들을 수십 건 올린 상태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5일 불거졌다. 당시 이창섭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는 데다 명절 '떡값'과 임직원 퇴직위로금까지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즉각 반발. 지난달 30일 이씨를 비롯한 대리점 범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남양유업은 이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파기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들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인터넷과 언론에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대리점주들이 모인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구성됐고 17일 MBC TV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유제품 회사가 재고 상품을 강매시켜 힘들어하는 대리점주들의 고통을 다룬 '공포의 밀어넣기' 편이 방송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강남스타일' 동영상 볼 수 있는 싸이 우표 18일 서울 중구 롯무로1가 중앙우체국에서 모델들이 '글로벌 가수' 싸이를 기념하는 우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표 4장과 미트카드, 강화유리 액자로 구성된 이번 우표 세트 뒷면에는 싸이의 사인과 QR코드를 담아 유튜브에 게시된 '강남스타일'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운행효율 개선을 위한 장거리 노선 단축

노선번호	기·종점	조정(안) 내용
661	부천상동 ~여의도 환승센터	~영등포시장~여의도환승센터 구간 단축 영등포시장~영등포역 회차
420	흑룡리~개포동	~옹두동~전농동 구간 단축
5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석수역	~을지로입구역~동대문역사공원 구간 단축
150	가이대교~도봉산	~시흥IC~기이대교 구간 단축
410	수유동 ~갤러리아백화점	~한남대병원~갤러리아 백화점 구간 단축 용산리에에서 회차(노선번호 변경 121번)

시내버스 16개 노선 다음달 조정

다음달 19일부터 마장동에서 여의도를 오가는 263번 시내버스의 퇴계로→세종대로 노선이 퇴계로→소공로→남대문로로 변경되는 등 16개 노선의 운행 경로가 바뀐다.

서울시는 경기 새환버스 노선 조정 심의를 거쳐 5개 장거리 노선의 단축과 16개 노선의 운행 경로를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150, 420, 500, 661번 간선버스는 각각 시흥IC, 용두동, 을지로입구역, 영등포시장에서 회차한다.

또 강동구 천중로 확장에 따라 강동차고지와 천호역을 오가는 3321번 지선버스가 신설되며 경기 분당과 성수동을 오가는 2412번은 세곡지구를 거치도록 조정된다.

승객이 적어 사라지는 4426번(개포주공4단지~양재역) 대신 4433번(양재역~대치역)을 증차하기로 했다. 7739번(홍제역~은평차고지)도 7738번과 노선이 겹쳐 연가교사거리~홍제역 구간을 단축하는 한편 연가교사거리에서 성산로 방향으로 가도록 봉원사 입구에서 회차한다.

노선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노선은 263, 342, 3422, 3423, 7024번이며 0018번은 405번과 통합해 405A, 405B로 운행된다. /채신호기자

택시 협상 결렬… 내일 운행중단

택시법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20일 전국 택시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택시 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택시 노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일명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대중교통 포기를 요구했다.

택시 단체는 19일 오전 비상총회 실행 방안을 협의한 뒤 20일 택시 운행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힐 예정이다. /정용철기자

예행연습하는 의장대 · 대통령 취임식날은 포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1주일 앞둔 18일 국군 의장대가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취임식이 열리는 25일은 초여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7%

자산 400조 육박 세계 4위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이 1년새 43조1000억원(12.4%) 늘어난 391조96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 공적 연금 중 자산 규모 3위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의 지난해 말 자산(395조원)보다 약 3조원 적은 것으로, 국민연금이 ABP를 자산 규모에서 추월해 세계 3위에 오르리라는 예상은 올해 1분기 혹은 그 이후에나 실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국민연금 자산은 392조 9244억원, 부채는 9567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30조1000억원, 연금 지급액은 11조5000억원이었다. /박상훈기자 cam@

24시간 눈 부릅뜬 성범죄 전담반 생긴다

미국 NBC 드라마 '성범죄 전담반'과 같은 수사대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경찰청은 18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면서 주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27일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담팀인 1319팀을 확대 개편한 이 수사대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10~27명씩 모두 208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이 수사대를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체제로 불기동해 관할구역을 넘나드는 전폭적인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가 장기간 파악되지 않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적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387명이며 이 중 54명이 소재 불명 상태다. 아울러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병행하면서 가해자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팅요기자 eleven@

법원 "현대HCN·티브로드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앞으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된 송달 50일 이후부터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채신현기자 ichi427@

서민 애환 달래던 육미집도 잿더미 서울 인사동 식당밀집지역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건물 8채와 점포 19곳이 불 탄 가운데 18일 소방관 및 감식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종로의 명소 선술집 '육미'도 흔적없이 사라졌다. /뉴시스

북촌·서촌 더 위험하다

서울 한옥마을내 도로 70% 소방차 못다녀

17일 저녁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사동 먹자골목뿐 아니라 북촌·서촌 등 한옥 밀집 지역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 가회·삼청동 등 북촌한옥마을과 공평·내자·옥인·필운·효자동 등 서촌한옥 밀집지역의 상당수 도로에 일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이 지역 내 도로 118개 중 69.5%인 82개는 골목이 좁고 집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 가옥 877동이 몰려 있는 북촌의 경우에는 77.0%, 603동이 들어서 있는 서촌의 경우 64.3%의 도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서울 소방 당국은 스타렉스 규모의 차량을 개조한 소형 소방차를 4대 운영하고 있으나 전날 발생한 인사동의 화재 때처럼 대형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낙후된 목조건물이 좁은 골목을 따라 오밀조밀 몰려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쉽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데 소형 소방차의 진화 능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화기나 소화전 등 비상소화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북촌의 면적은 112만6872㎡에 달하지만 비상소화장치는 11곳에만 설치돼 있다. 서촌 역시 넓이가 58만2297㎡지만 통의·효자동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아예 없으며 필운동에도 13곳에 불과했다.

소방 당국은 한옥마을에 1년에 2회씩 소방훈련과 주민 안전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동에 대해서는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동호기자 slevan@metroseoul.co.kr

충남교육감 "대포폰 사용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차 소환조사 혐의 부인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된 김종성 충남 교육감이 18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오전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교육감은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포폰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구속된 담당 장학사가 갖다 줘서 사용했는데 사용한 것이 죄라면 그것은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8일 충남지방경찰청 조사실을 향해 걷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교육감 문제 유출 지시 여부와 장학사들이 보관하던 돈의 사용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후 김 교육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부취재기자 unace@

미주노선 유류할증료 19만원 두달 연속 상승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6단계에서 17단계로 한 계단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미화 11달러(약 1만1900원) 오른 171달러(약 19만원)가 된다.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종전 158달러(약 17만1000원)에서 10달러(약 1만900원) 오른다. 이 밖에 대양주·중동(143달러), 서남아·중앙아시아(79달러), 동남아(64달러), 중국·동북아(50달러), 일본·중국 산둥(29달러) 등도 전월에 비해 2~8달러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 1만2100원에서 1100원 오른 1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박지원기자 pjw@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긁을수록 커지는 행운

출근길 선물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인기

메트로신문이 독자들의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론칭한 '복코드' 앱이 화제다. 첫날 바게트와 파리바게트 버거와 둘째 날 글라소 에너지음료에 연거푸 당첨됐다는 직장인 김동현(37)씨는 "메트로신문의 '복코드'는 아침 출근길을 즐거운 행운의 아침으로 바꿔줬다"면서 "매일 기대하면서 복코드를 긁어본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게재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면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최근에는 평균 30핵 응모에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앱스토어에 론칭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 앱은 아침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배동호기자

본 이벤트는 (주)메트로신문사와 (주)모비젠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 4배 껑충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4.2%,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13.9%로 목표치인 6.2%와 10.4%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2011년과 비교하면 고정금리 비중은 3.1%에서 14.2%로 4배 이상 늘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HSBC은행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1.9%, 경남은행 16.8% 순이었다.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적은 데 반해 지난해부터 적격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상환대출 비중은 2011년 38.3%에서 지난해 말 33.7%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 노력과 적격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개선됐다"며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kozhand@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에디슨, 축음기 특허 획득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1878년 2월 19일 축음기의 발명 특허를 받았다. 소리를 저장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실현된 셈이다. 당시의 이름은 포노그래프. 에디슨이 특허를 내면서 꼽아낸 축음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노래나 음악이 아니라 회의나 재판때 속기사 대신 말을 기록(축음)하는 것이었다.

총리·법무장관 이어 청와대 비서진 4명 모두 성대 출신

성균관대 라인 무섭게 뜬다

유민봉 곽상도 이남기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 과정에서 성균관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이 18일 발표한 청와대 인선을 보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3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64년 성대 법학과에 입학해 행정고시 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는 성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성대 법학과 출신의 법조인이다.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는 성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앞서 내정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10여 년 차이를 두고 성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법학과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 허태열·곽상도 내정자도 법대 선후배 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성대 출신의 안종범(경제학과) 새누리당 의원과 모철민(경영학과) 예술의전당 사장이 각각 고용복지분과와 여성문화분과 위원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인선 24명 중 성대 출신은 6명(24%)으로 서울대 출신(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나머지 11명 중 육군사관학교가 3명, 연세대가 2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고려대 출신은 1명에 그쳤고 부산여대·영남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존스홉킨스대 출신이 각각 1명을 차지했다. /김봉석기자

靑은 '박근혜 사람'으로

비서실장 허태열·국정수석 유민봉 등 내정…"청와대 친정체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박계 중진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 당선인은 18일 허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국정기획수석에,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인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검장을 민정수석에,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은 홍보수석에 각각 내정했다.

나머지 6수석에 대한 후속 인선은 2~3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허 내정자는 2006년 커터칼 피습을 당한 박 당선인(당시 당대표)을 사무총장으로서 보좌하는 등 박 당선인의 정치적 시련기를 지근거리에서 함께해 친박계 중에서도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이런 허 내정자 인선은 '친정체제' 구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허 내정자는 내무부 관료와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쌓은 행정·정무 경험을 갖춘 무게감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실무형 전문가 위주로 인선된 내각을 이끔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애초 박 당선인은 정부를 지원하는 '낮은 비서실'을 예고했으나 전문성에 무게를 둔 내각이 발표되면서 힘 있는 정무형 비서실장으로 허 후보자가 거론됐다.

허 내정자는 정치인 중에서도 "마당발"로 꼽혀 인사위원장을 겸해야 하는 비서실장에 낙점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한편 허 내정자는 2010년 한 조찬 세미나에서 "일본과 중국 인구 15억 명을 끌어들일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봉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5월4일 정기 전대 새 지도부 선출하기로

민주통합당이 5월 4일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선평가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 평가와 정치혁신위가 제출하는 당 혁신과제를 전당대회와 향후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당 비대위는 또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치혁신위가 제안한 공천혁신 방안을 반영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김봉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1가 1-141 142
TEL (02)721-9803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형익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김관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결국 박근혜 정부 + 이명박 내각

조직개편안 처리 또 무산 새정부 출범 차질 불가피

국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이명박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지난 14일에 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두 번째 처리 시한을 넘겼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담'을 통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이 민주당마저 거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김동철), "다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치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문병호)며 '원안 고수' 의사를 강조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다음 본회의는 박 당선인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예정돼 있지만 양당은 협상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 물밑 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봉석기자

구정소식

구로구 녹지조성 신청 접수

서울 구로구는 동네 녹화를 위해 자투리땅에 심을 나무 신청을 25일까지 받는다.

녹화 조성 대상지는 골목길, 사회복지시설 자투리땅, 담장 외곽 주변의 빈 공간, 가로변 녹지대 등이다. 5년 이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적 의무 조경지 등은 제외된다.

일반 주민, 각종 단체, 복지시설 관계자 등 대상지에 녹지를 조성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녹지대로 쓰일 장소와 간단한 식재계획도를 기재한 공모신청서를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우편, 방문 접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860-2264

Healing Festival with EPSON

엡손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하루!

2013년 3월 23일 엡손의 사랑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엡손 프로젝터를 구매**하시고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감상하세요.
엡손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공연과 함께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만찬**까지!
No.1 엡손의 Healing Festival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ing Festival

엡손 프로젝터와 모든 **즐거움**을 **함께**하세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Drector Choi Youn Yeop	www. showboy.com
"워커힐 와인 만찬" Sheraton Grande Walkerhill Hotel Wine Dinner	www. sheratonwalkerhill.co.kr

행사기간 2013년 2월 5일~ 3월 17일

행사내용 엡손 프로젝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에게 행사참여쿠폰을 드립니다
엡손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등록하시면 추첨을 통해 200분에게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과 함께하는 워커힐 디너 패키지 2매를 드립니다.

행사경품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프로젝터 키라이트를 증정해 드리며, 추첨을 통해
퍼스널 시스루 시어터 모베리오(BT-100) 3D 홈프로젝터(EH-TW550)
사진 인쇄 프린터(L350)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공연일시 : 2013년 3월 23일(토) 오후 6시~9시

공연장소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워커힐씨어터

* 자세한 사항은 엡손 홈페이지(www.epson.co.kr)를 참조하세요.

전 세계 27기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Mexico

Convierte miles de de Ciudad Juárez e

Se excusó por ebriedad

metro Hong Kong

離婚報復炸死七人

中 이혼남 끔찍한 복수극 26명 사상

중국의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량 폭탄 테러를 벌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계드로 홍콩은 13일 광동성 잔장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자오씨집의 집에서 폭발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범인은 놀랍게도 제오 씨의 사위 천모씨. 천씨는 자오 씨의 둘째딸과 10년 전 이혼했다. 이날 사고로 천씨의 딸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사람은 "두 사람은 잦은 다툼 탓에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천씨가 이에 앙심을 품었다"며 "이런 비극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metro Russia

Экраны сообщат об опасности

시내버스 스크린이 "위험해요" 경고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 '2013 국제 기술안전포럼'에서 주목을 받은 제품은 단연 모스크바의 최신형 버스였다. 이 차세대 버스는 최첨단으로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133개 노선 운행에 큰 차이가 없지만 내부에 최첨단 스크린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스크린은 비상시 신속하게 위험을 알려 승객들의 안전한 승차를 돕는다. 또 버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크린은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다. 최첨단 스크린이 설치된 버스는 올봄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metro France

매춘부와 악연 佛축구계 악동 또 매춘스캔들

프랑스 축구계가 매춘 스캔들로 술렁이고 있다.

메트로 파리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스타드 렌에서 활약하다 지난 1월 러시아의 FC 쿠반 카잔으로 이적한 안 음빌라(23·사진)가 미성년 매춘 혐의로 예비조사를 받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그1 생테티엔의 선수, 래퍼, 프랑스 리얼리티 TV 방송 프로그램 '로프트 스토리'의 전 출연자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조사 중이라고 낫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파리의 레알 지구에서 16세 소녀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소녀는 22세라고 우겼지만 곧 들통났고 따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후 소녀의 휴대전화에서 매춘 정황이 담긴 사진과 문자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매춘 스캔들'로 사건을 확대 조사 중이다.

특히 이 소녀와 동침한 사실이 들통 난 음빌라는 각종 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프랑스 축구계의 '악동'이다. 음빌라는 2011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 파티를 벌이던 중 매춘부들로부터 물건을 도난당해 프랑스 국가대표 유니폼을 빼앗긴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출전 3일 전에 클럽을 돌아다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한편 음빌라는 파트릭 비에라와 클로드 마켈렐레를 이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유망주다.

/오랄 에마네르 기자 · 정리=이국명기자

무기가 악기로 '개과천선'

멕시코 조각가, 압수된 권총·대포 등으로 드럼·실로폰 제작… 영국 등서 전시회도

멕시코에서 사람을 죽이던 무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악기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각가 페드로 레예스는 후아레스 지역에서 압수되거나 자진 반납된 무기를 악기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후아레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인구 130만의 도시다. 세계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아 '죽음의 도시'로 불린다. 갱단의 폭력 사태가 극에 달해 하루 평균 10명이 살해된 적도 있다.

레예스의 작업실에서는 단약통을 두드리는 쇠망치, 실로폰처럼 다양한 길이로 잘린 대포, 드럼처럼 쇠판을 때리는 권총 등 '이색 악기'들을 볼 수 있다. 악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대중가요에서 재즈까지 여러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레예스는 "내가 악기로 만든 무기들은 군에서 처분해야 하는 무기 중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악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연주가 잔인한 무기로 살해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자유롭게 하는 진혼곡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압수된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당국의 제안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압수한 무기는 소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쇠붙이 조각'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레예스의 작품은 다음달 영국 런던의 리슨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이후 미국에서의 전시회도 계획돼 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예스는 2008년 권총 1527정을 녹인 뒤 1500여 개의 막대를 빼어내 나무처럼 심는 '권총으로 막대를' 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리=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돈 때문에 아플 수도 없는 뉴요커
- 저칼로리 '선인장 맥주' 유럽 시판
- 불발 폭죽 반품하러 가다 '대폭발'

BENNIGAN'S NEWS

Job advertisement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고의 서비스 전문가가 되실 분만 모십니다.

외식업 서비스 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란에 체크해주세요

1. 모두에게 친절하다 ☐
2. 인사를 먼저 건넨다 ☐
3. 항상 웃는 얼굴로 대화한다 ☐
4. 남의 일이라면 내일보다 먼저 발벗고 나선다 ☐
5. 친절을 베풀면 보람, 희열을 느낀다 ☐
6.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을 보면 자리를 비켜드린다 ☐
7. 너무 친절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8. 나만큼 친절한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
9. 친절하다는 소리가 듣기 좋아서 계속 친절하게 된다 ☐
10. 내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위 항목 중 7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당신은 최고의 대우로 서비스 전문가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하단의 매장 전화문의 바랍니다]

www.bennigans.co.kr

베니건스 클래식 대학로점 02) 766-9800 종로점 02) 739-7600 서울역점 02) 362-9700 코엑스점 02) 567-8800 노원점 02) 931-2300
인천구월점 032) 455-1400 인천공항점 032) 743-6500 부천점 032) 326-6200 부평점 032) 504-7300 분당점 031) 709-9100
동성로점 053) 424-6200 창원점 055) 261-5700 대전둔산점 042) 488-6100 울산점 052) 271-4800

베니건스 더키친 압구정점 02) 517-5007 일산점 031) 915-6800 해운대점 051) 740-6600
롯데강남점 02) 531-2077 롯데파주점 031) 960-2560 천안신세계점 041) 640-5135 롯데 광주수완점 062) 616-2553

베니건스

KOSPI

2/12	2/13	2/14	2/15	2/18
1950.90	1976.07	1979.01	1981.16	1981.91 (+0.75)

KOSDAQ

2/12	2/13	2/14	2/15	2/18
503.72	507.99	512.53	514.58	518.52 (+3.94)

Nikkei (일본)
11407.87 (+234.60)

Hang Seng (홍콩)
23381.94 (-62.62)

Shanghai (중국)
2421.56 (-10.84)

Dow Jones (미국)
13981.76 (+8.37)

EXCHANGE RATE 매매기준율 적용가

통화	환율
달러	1082.50
엔 (100)	1151.84
유로	1442.86
위안	173.36

1% : 28%

애플-삼성·LG스마트폰 2년간 평균 가격 상승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제품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LG전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률이 28.2%를 기록해 세계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ASP 상승률이 27.9%로 LG전자와 0.3%포인트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소니(11%)와 모토로라(9%), 애플(1%) 순이었으며, 블랙베리(옛 리서치인모션)와 노키아는 각각 14%와 18%씩 감소했다. 이 기간 업계 평균 ASP 상승률은 11%로 집계됐다. 2011년과 지난해만 비교했을 때도 삼성전자의 ASP 상승률이 40%, LG전자가 33%로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1~2위를 나눠 가졌다. 같은 기간 애플의 ASP는 1% 감소했다 /박상준기자

'세계 5대 車생산국' 한국 8년연속 포함

우리나라가 8년째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 자리를 유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 자료'(해외 생산은 현지국가에 포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456만 대로 8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생산 비중 가운데 5.4%였다

우리나라의 내수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유가 탓에 전년 대비 4.3% 감소한 141만 대를 나타냈다. 수출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317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상준기자

저축은행 대출심사 바뀐다

금융 당국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의 먹거리 해결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의 체질을 '관계형 금융'으로 전환한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등급 등이 기준보다 떨어져도 주변 신뢰가 높고 평판이 좋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요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을 지역밀착형 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지성기자

"무엇을 향한 5년 만들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8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뒤로 1972년 연구원 개원을 축하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액자가 걸려있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뒤 전문 경제 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다 /연합뉴스

'가계빚 더는 경제설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KDI 재임 중 관심사
박 당선인 '18조원 행복기금' 공약과 일맥상통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끄는 새 정부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해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가계부채 부실을 완화하려고 신용 7등급층·50대 이상·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KDI에 따르면 현 내정자가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발간된 보고서는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위험성을 한결같이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 발간사에서 현 내정자는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비은행권 등 상의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실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 7등급의 부실 위험 관리와 부채 조정 방안 마련을 짚었다. 50대 이상 채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시 충격으로 나타나는 가계 부실을 완화하는 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이런 KDI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 가계부실 완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김재성기자 [email]@metroseoul.co.kr

제 4이동통신 탈락자 "이의 있습니다"

KMI, 방통위에 공개질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심사위원 측과 지원사 측이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최근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8일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KMI는 질의서에서 심사위원들의 청문심사 지적 사항 및 질문 내용, 방통위 심사 결과 발표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질의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 심사항목별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답변과 견해를 담았다

KMI는 또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음성변조하는 청문심사 방식에 대해 "4시간 이상 음성변조된 심사위원의 질의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서면조사와 대화를 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방통위 측은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등을 종합한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며 KM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아직 KMI가 보냈다는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zen@

삼성·현대차 제외 10대 그룹 법인세 수익 악화로 급감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올해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올해 납부할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 82개 상장사의 2012 회계연도 영업실적 잠정치(개별 기준)를 근거로 올해 예상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조722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6.7%(1조678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세계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현대차가 소속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대 그룹 중 나머지 8개 그룹의 올해 예상 법인세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16개사)은 SK하이닉스가 적자로 전환한 데다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등의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 비용이 1조4270억원에서 7660억원으로 6610억원(46.3%)이나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LG그룹(11개사)은 계열사인 LG화학 등의 수익성이 악화해 법인세 비용이 전년보다 1430억원(14.8%) 감소했다 /박상준기자

시속 252km 카이엔 S 디젤 상륙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내에 출시되는 포르쉐의 새 모델 '카이엔 S 디젤'이 공개되고 있다. 이 모델의 최고속도는 252km/h이다 /뉴시스

내 딸·아들 안놓치는 '아빠같은 카메라'

입학·졸업의 순간 더 빛낼 '삼성 갤럭시 카메라' 100% 활용법

졸업·입학 시즌이다. 학부모는 아이의 소중한 추억을 가장 잘 담아내 줄 카메라를 찾아 고심하는 때다. 이런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효자 카메라가 찾아왔다. 삼성 갤럭시 카메라와 함께라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전문가처럼 손쉽게 고급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지인과 공유가 가능하다. 내 아이의 특별한 순간인 입학식 풍경을 잘 담아줄 삼성 갤럭시 카메라의 100% 활용법을 소개한다. /채성운기자 zen@metroseoul.co.kr

언제나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작하는 입학식. 우리 아이의 새 출발인 입학식에서 아이뿐 아니라 지켜보는 학부모도 긴장되고 설레기 마련이다.

입학식장의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엄마는 내 아이만 눈에 띈다. 이런 엄마의 심정까지 고려한 갤럭시 카메라의 21배 광학 줌 기능으로 아이와 멀리 있는 엄마도 바로 옆에 있는 듯 아이를 촬영할 수 있다.

갤럭시 카메라의 순간 포착 모드로 움직이는 아이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햇살을 받으며 웃는 모습은 역광을 이용해 촬영하는 기능인 실루엣 모드로 작품 사진처럼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입학식 날 비가 오거나 흐려도 풍부한 색조 모드를 이용하면 선명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 갤럭시 카메라의 슬로 모션 비디오 기능은 영화 같은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신입생과 선생님의 만남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는 모습, 신입생의 설렘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빛까지도 슬로 모션으로 생생하게 담아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 모드를 이용해 찍은 우리 아이 사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갤럭시 카메라의 보정 및 편집 기능을 이용해 수정해보자.

아이의 얼굴이 어둡게 나왔다면 뷰티 페이스 기능을 이용해 보다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으며 파노라마 모드로 입학식 전경을 담을 수 있다.

비슷한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싶다면 간단하게 베스트 포토 모드를 이용하면 된다. 연속촬영 후 가장 좋은 사진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선택해 준다.

갤럭시 카메라의 베스트 페이스 모드를 이용하면 단체 사진을 찍더라도 눈 감은 사람, 찡그린 사람 걱정 없이 모두가 웃는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페이퍼 아티스트로 다양한 사진 효과를 연출해 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내 손으로 편집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수많은 학생속 빛나는 자녀 미소 21배 광학줌
흐린날엔 '색조 모드'로
슬로모션 비디오 가능
영화같은 입학식 촬영

◆ 참석 못한 가족엔 '셰어샷' 전송

삼성 갤럭시 카메라는 안드로이드 4.1(젤리빈) 운영체제(OS)를 탑재했으며 와이파이나 3세대(G) 이동통신, LTE(4세대 이동통신)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다.

우리 아이 입학 소식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회사 일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아빠에게 곧바로 전할 수 있다. 공유촬영(셰어샷) 기능을 이용하면 최대 5명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입학식 사진을 받길 원하더라도 일일이 전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사진을 보내면서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과 카메라 기능을 결합한 갤럭시 카메라에서만 가능하다.

3월까지 충전킷 추가 제공

삼성 갤럭시 카메라는 이동통신 매장 및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날 수 있다.

갤럭시 카메라는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한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OPMD요금제) 및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구입할 수 있으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는 요금제 가입 없이 단말기만 구입할 수도 있다. 2~3월 갤럭시 카메라 구입 고객에게는 충전킷(충전기+배터리)을 추가 증정한다.

2배 더 선명한 HD폰 '옵티머스 G 프로' LG전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두 번째 G시리즈 '옵티머스 G 프로'를 공개하고 있다. 옵티머스 G 프로는 5.5인치 대화면의 풀HD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기존 HD급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생생한 화질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올겨울 4륜구동 판매 급증

눈이 많이 내린 올겨울 4륜구동 차량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륜구동과 4륜구동을 모두 판매하는 국산, 수입차 모델 중 4륜구동의 판매 비중이 커졌다.

지난달 판매된 현대차 싼타페 가운데 4륜구동 모델은 26.9%를 차지해 지난해 평균 16.8%보다 높았으며 벤츠 E클래스는 이 비율이 지난해 평균 51%에서 지난달 73.3%로 급증했다. /채성운기자

허창수 GS회장, 전경련 회장 연임 수락

허창수 회장(GS그룹 회장·사진)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 연임을 결국 수락했다.

전경련은 허 회장이 고심 끝에 회장단의 만장일치 재추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부터 회장을 맡아온 허 회장은 2015년 2월까지 다시 한번 전경련호를 이끌게 됐다. 전경련은 21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단을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전경련 회장단은 그동안 허 회장의 거듭된 고사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전경련이 경제계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해 재추대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전경련 회장은 초대 이병철 회장, 18대 구자경 회장, 28대 손길승 회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임하는 기록을 남겼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의를 중요시 하는 허 회장의 성품상, 만장일치 재추대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물린 힘든 시기이지만 허 회장이 원활하게 전경련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상근부회장의 뜻을 받아들이고 후임 상근부회장에 이승철 전경련 전무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를 거쳐 2007년 4월부터 전경련 전무를 맡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71세까지 가입되는 고령 전용 암보험

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낮춘 고령자 전용 보험이 나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제도'가 도입됐다. 61~75세면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길게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상담 전화(080-951-8585)로 문의하면 된다.

과학기술 미래 핵심인재 양성

이번주 채용기업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30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국가연구소대학)이다. 기존의 이공계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현장 중심 교육으로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아시아 최고의 국가연구소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학생·직원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박사 1인당 SCI 논문 4.03편, 특허출원 1.53건 등 탁월한 교육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U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산실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 여건이 우수하다.

또 사학연금 가입, 건강검진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구성원들의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본부에서는 제2의 도약을 함께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 인력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UST 홈페이지(www.ust.ac.kr)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충북인력개발원 교육생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은 국비 지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정보통신·전기시스템제어·전자기술 등으로 분야에 따라 4개월~1년 과정으로 나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원 상당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 충북인력개발원 홈페이지(cb.korchamhrd.net)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41)730-0114, 0111

주간 채용캘린더

19(화)	현대종합금속, KDB캐피탈(경력), 한국산업단지공단
20(수)	삼성에버랜드(경력), 조선호텔(신입), 애니카서비스(경력), 국민은행(신입)
21(목)	JYP엔터테인먼트, 유니드, 한국필립스(경력)
22(금)	농심NDS(경력), 제키리빙(경력), 두원공조
23(토)	네트워오앤에스(경력), 따우루참즈
24(일)	한국공항관리공단, 케이엔지테크놀로지
25(월)	쌍용자동차, 전북테크노파크(경력), KAI, 삼성에버랜드(신입), ST일렉트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상반기 공채
2위 생산직 채용
3위 공공기관 청년인턴
4위 관세사
5위 국어능력인증시험
*2월 12~18일 인기 검색 순위

<경력을 보유한 신입 지원자>

'올드루키' 빛 좀 보겠네

"스펙 쌓기에 매몰된 기존 방식으로는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 관문을 절대 뚫을 수 없다."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 이 같은 주장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채용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스위치형 인재가 인기를 끌고 새로운 채용전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좋은의 취업포털 커리어 수석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올 상반기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본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스펙 쌓기는 이제 그만**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열린 채용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직무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자격 조건 때문에 숨은 인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펙 붕괴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학점·토익 등 스펙 만들기보다는 목표 기업·직무에 맞춘 실무 경험 등을 쌓는 맞춤형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 **스위치형 인재 인기** 불황일수록 기업은 장기간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 인재보다는 스위치형 인재(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올 상반기 공채에서 올드루키(경력을 보유한 신입 지원자)를 원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자들은 목표한 기업에 바로 지원하기보다는 유사 직무·업종에서 현장 경력을 쌓는 편이 유리하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등도 꼭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좋다.

채용시장 이런 인재 주목

직무 무관 스펙보다
각종 실무경험 무장
바로 써먹을수 있는
스위치형 인재 선호

◆ **새로운 채용전형 봇물** 서류와 면접에 국한되지 않은 신채용전형이 눈에 띈다. 삼성전자의 창의플러스 전형이나 SNS 활용 사항만을 평가하는 SK텔레콤의 소셜매니저 채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연계한 채용 방식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 **SNS 활용은 기본** SNS가 취업 신무기로 나올 각광받을 조짐이다. 많은 기업들이 SNS를 통해 구직자와 일대일로 소통하고 있으며 채용 SNS를 운영하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취업포털, 취업스터디 등의 알짜 정보도 SNS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주목해야 한다. 관심 있는 기업의 SNS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인성을 갖춰라** 인·적성검사와 역량 면접을 강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핵심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만드는 기업도 있다. 스펙이 뛰어난 인재보다는 인성을 제대로 갖춘 인물을 원하는 최근 트렌드 때문이다. 다양한 독서와 규칙적인 신문 읽기 등을 통해 부족한 인성을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값 노트북 마련하세요" 18일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열린 11번가 '반값 노트북' 쇼킹노트 '더 원' 출시 행사에서 보디페인팅을 한 모델들이 '더 원'을 선보이고 있다. 더 원은 PC 전문 제조사 에이서가 11번가와 합작해 내놓은 제품으로 고객 실수에 의한 파손도 90일간 보상하며 가격은 29만9000~34만9000원. /연합뉴스

이공계 대학생 싱가포르서 손짓하네

28일까지 인턴 화상면접

올여름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싱가포르 정부기관 컨택싱가포르는 온라인 채용 박람회인 '익스피어리언스@싱가포르'의 지원을 28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박람회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물리학 등 90여 분야에서 인턴십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교 3~4학년 또는 석사 과정에 재학 중으로 평균 B학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contactsingapore.sg/experienceSG/research/Jul2013)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한 인재들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청(A*스타)에서 저명한 교수들의 지도하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인턴십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 항공료는 물론 인턴십 기간 동안 매달 1500싱가포르달러(약 130만원)의 체재비도 지원받는다.

/이국명기자

디스크수술 했는데도 "아이고, 허리야"

허리수술 후 통증증후군 유상호병원에 물어보세요

프롤로·DNA주사요법으로 인대이완 근본치료를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허리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에도 잡히지 않는 통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유상호병원 유상호 병원장에게 들어봤다.

같은 MRI 사진·환자를 두고도 수술을 꼭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수술은 레이저로, 혹은 내시경으로 해야 된다 등 여러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

유상호 병원장은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세 호전만 하는 것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리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경우 병원을 가보면 대개 수술한 부위의 제장에 의한 유착, 불완전한 신경감압, 재발 등의 원인을 제시받으며 재수술이나 신경성형술, 고주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2~3회 이상의 재수술 또는 기타 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통증 완화가 없는 경우다.

통증의 원인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디스크에 대한 여러 시술 이후에도 잡히지 않는 통증의 주원인은 척추인대의 만성 이완이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인대가 뼈에 붙는 취약한 부위는 한 번 손상이 일어나면 저절로 재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 원장은 "인대의 이완이 발생하면 점점 더 이완이 심해지고 번지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다"며 "과도하게 불안정해진 척추는 먼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파열을 속발해 여러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스크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게 되면 근본 원인인 인대의 이완이 치료되지 않으므로 전혀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만성 인대 이완의 경우에는 인대의 증식과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롤로, DNA 주사요법이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는 인체에 무해한 고삼투압 용액으로 구성돼 있는 주사액을 이완돼 있는 각 경추부와 요추부의 인대에 직접 주사해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체내에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건강한 염증 시아를 유도, 인대를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DNA 주사는 혈관 내 성장인자를 자극시켜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시키는 치료법으로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튼튼해진 인대는 척추 근육의 불균형으로 약해진 척추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유 원장은 "디스크 수술 이후에 다시 운동을 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하거나 너무 오래전에 수술한 환자들은 프롤로, DNA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울아기 이것 체크하면 귀도 반짝~ 코도 반짝~

손뼉 쳐도 무반응땐 '난청' 끈끈한 콧물 축농증 의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겨울철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더 큰 부담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할 증상들을 소개한다.

두 살이 다 돼가는 아이인데도 말은커녕 옹알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일 난청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은 물론 언어학습을 통한 지능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케어네트워크 김양박이비인후과 김영기 원장은 "신생아 때 별 문제가 없더라도 유전성 난청의 경우는 자라면서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생후 3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았더라도 생후 1년 이내에 청력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간단한 행동으로 난청 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문을 세게 닫거나 아이의 뒤에서 손뼉을 친 후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 등이 있다.

축농증은 코 주위에 자리한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에 염증이 발생해 고름이 쌓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축농증은 대부분 감기와 함께 발병한 급성 축농증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거나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이 진행돼 만성화된 염증이 부비동으로 전이된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실내온도를 20도 안팎, 습도는 50~60%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누렇고 끈끈한 콧물이 나오거나 코나 위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축농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etroseoul.co.kr

차병원 '파킨슨병의 기적' 도전

유산된 태아 뇌세포로 국내 첫 임상시험 시도

유산된 태아의 뇌 속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상섭 교수팀은 유산된 태아의 중뇌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하나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해 안전성과 약물내성을 확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유산된 태아 뇌 조직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해 파킨슨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보고는 지난 1990년 말 스웨덴 연구팀에 의해 제시됐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연구팀이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소 5~10개의 태아 뇌 조직이 필요한 게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세포 대량증식기술을 이용하면 태아 뇌 조직 1개로 수천~수만 명 이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차병원 측은 현재 최소 5만명 이상의 세포 치료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확보했으며 동물시험을 통해 이들 세포의 유전적 안전성, 독성시험 등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정상섭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세포치료제는 정상 염색체를 갖는 뇌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함으로써 매우 균일한 치료 효과를 낸다"면서 "일부 세포가 신경전구세포로 분화됨으로써 세포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우울증 치료 '전기충격 패치' 개발

이마에 붙이고 자면 우울증이 개선되는 전기충격 패치가 개발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 신경과전문의 크리스토퍼 데죠르지오 박사가 개발한 이 전기충격 패치는 우울증을 50% 완화시키고 약이 듣지 않는 간질발작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밝혀졌다.

이 전기충격 패치는 유선으로 소형 배터리와 연결돼 기분 또는 간질발작과 연관이 있는 뇌 부위와 연결되는 삼차 신경을 자극한다.

'제2회 가송예술상' 공모

동화약품과 부채표가송재단은 다음달 11~15일 '제2회 가송예술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특별한 제한 없이 부채를 주제로 한 시각예술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작가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작가 10인은 7월에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그룹전 '어부생생색전'에 참여하게 된다. 주최 측은 참가작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발해 상금과 개인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www.gongartspace.com

올봄 훈남의 자격 '컬러 팬츠'

정우성·공유·이장우 3색 패션화보 속 트렌드 읽기

패션업계 '훈남' 모델들이 상큼한 화보로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봄 유행할 최신 스타일까지 제안하는 것이다.

세정의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은 올해의 새 얼굴로 배우 정우성을 발탁하고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인디안 측은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젊게 탈바꿈하기 위해 연예계 패셔니스타인 정우성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핑크색 팬츠와 스트라이프 티셔츠, 와인색 로퍼 등으로 감각적인 스타일을 뽐냈다.

마인드브릿지의 전속모델인 공유는 배우 고준희와 다정한 커플룩을 연출했다. 공유가 착용한 듀얼 재킷은 화사한 컬러가 돋보이는 트렌디한 아이템. 격식 있는 자리뿐 아니라 평소에도 입을 수 있어 20~3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에서 열연 중인 배우 이장우는 캠퍼스 훈남으로 변신했다. 최근 한 패션 잡지와의 화보 촬영에서 이장우는 맨투맨 티셔츠, 오렌지색 바지에 오클리 백팩을 코디해 활동적인 대학생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박지원기자

강남오빠 스타일 '머리발' 비밀병기

남자는 '머리발'이다. 때일 아침 여성들이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 듯 남성들은 머리 만지는 데 시간을 쏟는다. 최근 훈남의 상징인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모발 건강을 모두 고려한 다기능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소망화장품의 꽃을든남자는 싸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헤어 전문 라인 '꽃을든남자 에너지 팩토리 스타일 크리에이트'를 선보였다.

소망화장품-가수 싸이 헤어제품 콜라보 출시

강력한 세팅력으로 땀이나 물에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소이빈에서 추출한 레시틴 성분을 함유해 모발에 뭉치지 않는다. 왁스 4종, 스프레이·헤어젤 2종으로 구성했으며, 모두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다.

헤어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비듬처럼 하얀 가루가 날려 창피를 당하기 일쑤다.

모로칸오일의 '루미너스 헤어 스프레이'는 아르간 오일 성분이 들어 있어 사용 후에도 끈적이거나 잔여물이 남지 않고 가벼운 빗질만으로도 쉽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박지원기자

100자 브리핑

GS수퍼마켓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가운데 처음으로 알뜰폰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20일부터 주요 매장 10곳에서 주부폰, 효도폰 콘셉트의 피처폰 3종(3만5000원), 스마트폰 2종(7만원)을 판다.

현대홈쇼핑의 **현대H몰**이 소셜커머스 사업을 시작한다. 오늘(19일) 오전 9시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H몰에서 판매 중인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전문관 '클릭H'를 연다.

삼광유리 **글라스락**이 세계적인 주방용품 브랜드 테팔과 공동 브랜드인 '테팔 글라스락'을 출시하며 첫 수주액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4월부터 테팔 글라스락은 유럽과 남미,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멕시코 고추' 팍팍 뿌린 라면 매출 쑥쑥

얼마나 매울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매출로 연결시킨 라면이 등장했다. 청양고추보다 20배 매운 멕시코산 하바네로 고추의 이름을 딴 '도전! 하바네로'로 이마트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자체상표(PL) 라면이다.

이마트는 18일 '도전! 하바네로'가 출시 3개월 만에 170만 개가 팔려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시 매운 라면으로 몰리고 있는 트렌드를 제대로 공략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봉지라면 중 매운 라면 제품의 매출은 지난해 4월 44%이던 것이 12월엔 55%로 뛰었다.

농심 또한 매운맛을 기존보다 50% 강화한 '진짜진짜'를 지난달 리뉴얼 출시했다.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하늘초 고추의 함량을 늘려 매운맛의 강도를 측정하는 스코빌 지수를 기존 신라면 수준인 2700SHU에서 4000SHU로 확 끌어올렸다. /진효순기자

'레종' 담뱃갑 디자인 변신

KT&G가 18일 '레종(RAISON)'의 네 번째 버전 신제품을 공개했다.

2002년 출시 이후 꾸준한 리뉴얼 작업을 선보여온 레종은 이번엔 레종블랙, 레종블루, 레종그린 등 레종 브랜드 담배 3종의 포장을 바꿨다. 레종의 캐릭터인 고양이를 재치있게 표현하고 패키지 전체에 물결무늬를 적용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화했다. 가격은 기존과 같은 갑당 2500원이다.

롯데면세점, 전세계 33개 도시 항공권 쏜다

롯데면세점이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런던, 파리, 로마, 이태리, 뉴욕 등 전 세계 33개 도시의 왕복 항공권을 33명에게 증정하는 등의 '더 롯데 페스티벌'을 4월 18일까지 진행한다. 항공권 증정 행사는 미화 33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이면 롯데면세점 전 점에서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또한 롯데면세점이 우리나라 최초의 면세점으로 시작해 아시아 1위 면세점을 넘어 글로벌 톱 면세점 4위로 올라선 것을 축하하고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선불카드를 최대 21만원까지 증정하고 롯데면세점 단독 전자제품 특가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가 '참이슬' 새 연인

배우 유아인과 문채원 커플의 풋풋함을 이을 열군이 공개됐다. 하이트진로가 18일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의 새로운 모델로 탤런트 김영광과 이유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연애 이야기를 선보이며 참이슬이 내세워온 '깨끗함' 콘셉트를 강조할 예정이다.

외모는 이래도 실제론 여려요

'학교'가 배출한 신예스타 김우빈

장혁·조인성·임수정·배두나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학교' 시리즈가 올해 탄생시킨 신예스타를 꼽자면 단연 모델 겸 연기자 김우빈(24)이다. 지난달 말 종영한 KBS2 '학교 2013'에서 반항아 박흥수 역을 맡은 그는 학생 역으로 출연한 많은 연기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다. 2013년 계사년 '뱀띠 스타'인 김우빈의 사적이 기운지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인기비결과 방송분량 뒷얘기

극중 흥수는 과거에 아픔을 간직한 채 남순(이종석)과 갈등하고 화해하며 진한 우정을 나눴다. 수려한 외모와 흡입력 있는 연기는 여심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종영 직후 이주간 4시간 딱 하루밖에 쉬지 못했을 만큼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원래는 방송된 것보다 출연 비중이 훨씬 적었어요. 시놉시스를 보면 비중에 따라 연기자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제 이름은 한참 뒤쪽에 있었으니까요. 주인공 남순의 사연 있는 여러 친구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후에 극중 남자들의 우정이 강조되면서 비중이 계속 늘었죠.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 살 찌우기 전쟁, 하루 계란 한판

교복만으로도 남다른 몸매를 뽐내기도 했던 그는 모델 출신으로 187cm의 훤칠한 키를 자랑한다. 전북 전주에서 성장해 스무 살 때 서울컬렉션에 선 것이 모델의 시작이다. 이후 2011년 KBS2 '드라마 스페셜-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 후 SBS '신사의 품격'과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출연했다.

"중학생 때 일찌감치 모델로 진로를 정하고, 마른 몸을 찌우기 위해 하루에 계란 한 판을 먹었죠.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오로지 모델과 교수라고만 생각했는데, 광고 촬영에 필요한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노 미술이 생겨버리라고요. 다음엔 영화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이번 작품으로 이종석과 절친

이번 작품에서 어떤 마음으로 흥수를 연기했느냐는 질문에 대뜸 "남순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둘의 진한 우정을 나누며 같은 모델 출신인 이종석과 진짜 절친이 됐다. 다른 작품을 할 때는 본인의 신이 끝나면 차에서 자기 바빴지만 이번엔 종은 늘 함께 있으면서 웃으며 촬영했다.

187cm 모델로 연예계 첫발
반항아 흥수 역 눈도장 쾅!
다음에는 영화 도전하고파

"거짓 연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보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종석이와 저는 현장에서 진짜 남순이고 흥수였죠. 종석이가 진짜 남순이로 느껴진 덴 저를 흥수로 대해줬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알고보면 의리의 사나이

실제로도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리의 사나이다. 지금은 함께 온 동하는 친구들이 그의 '절친'이다.

"저는 우정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남자끼리 무슨 사랑이냐'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이성만이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줘요. 조만간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거하게 술 한번 쏠 겁니다."

일 욕심이 많아 3~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연애가 마지막이었다는 그는 사랑과 우정의 갈림길에 선다면 어떤 걸 택하겠냐는 다소 유치한 질문에 "사랑도 우정만큼 뜨겁게 한다. 여자친구가 친구를 좋아하면 양보하겠지만 나와 서로 좋아한다면 친구에게 내 행복을 빌어달라고 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 책읽기, 연예활동에 큰 도움

흥수와 다른 면이 더 많다는 그는 "생긴 건 이래도 여려서 눈물과 애교가 많다. 파이팅이 넘치고, 게그 욕심이 있어 '개방정'을 떨기도 한다"면서 웃었다. 중학생 때 전교 5등까지 했던 모범생이었고, 고등학생 때도 모델을 준비하느라 공부와는 멀어졌지만 반항아는 아니었다.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코웃음을 쳤지만 부모님은 믿어주고 응원해줬어요. 대신 책을 많이 보라고 하셨죠. 그 영향으로 지금도 종종 대형서점에 가서 책을 5~6권씩 한꺼번에 사서 읽어요. 책을 읽은 게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됐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모델 활동도 계속하고 좋은 배우라는 말도 듣고 싶어요."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원성미

---

star bag

'내 연애의 모든 것' 주연

배우 이민정이 SBS 수목극 '내 연애의 모든 것'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여·야당 국회의원 커플의 비밀연애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에서 그는 야당 의원 노민영 역을 맡았다. 여당 의원 김수영 역에는 앞서 신하균이 캐스팅을 확정지었다. 이민정은 "당찬 모습 이면에 여린 모습을 가진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후속으로 4월 초 방송된다.

차태현·송중기와 한식구

배우 임주환이 차태현·송중기와 한솥밥을 먹는다.

MBC '탐나는도다' 등 안방극장의 꽃미남 스타로 연기를 보였던 그는 16일 전역과 동시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입대해 국방홍보원 연예사병으로 복무했으며, 군사훈련 중 심장질환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나 민가 전역했다.

3집 첫번째 챕터 내일 발표

그룹 샤이니가 정규 3집을 두 차례에 나눠 발표한다.

20일 첫 번째 챕터인 '드림 걸-더 미스컨셉션 오브 유'를 출시하며 4월에는 '드림 걸-더 미스컨셉션 오브 미'라는 이름의 두 번째 챕터를 발표한다. 두 앨범에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키워드가 숨어 있어 키워드를 찾고 연결해 다양하게 해석해볼 수 있는 재미를 담았다.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

가수 세븐이 군 입대를 앞두고 국내에서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는 다음달 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병뮤'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토크 콘서트를 콘셉트로 한 이번 공연에서 그는 데뷔 10주년을 맞이 팬들과 쌓은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사랑받은 히트곡도 들려준다. 최근 일본 도쿄와 고베에서도 콘서트를 열었다.

"박시후에 성폭행 당했다" 20대 연예인 지망생 고소

배우 박시후(사진)가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피소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5일 지인의 소개로 박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illegible]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박시후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박시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시후는 문근영과 함께 출연한 SBS '청담동 앨리스'가 종영하던 지난달 말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다.

현재 측근이 박시후의 일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권현기자

'서영이' 여배우들 [ ] 간다

드라마 종영 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여행…이보영은 개인 스케줄 탓 못가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의 여배우들이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오른 드라마의 성공을 자축하며 종영 후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보영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아·최윤영·장희진 등 젊은 여배우들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달 중순께 스페인의 유명 성지순례 코스인 산티아고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아의 주도하에 의기투합한 이번 여행에서 이들은 순례길을 걸으며 '힐링'을 하고 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보영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이번 여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작사나 방송사가 주는 포상 휴가가 아닌 한 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들끼리 자체적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촬영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맏언니 이보영의 리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뭉쳐 회식을 하는 등 단단한 팀워크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작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높은 시청률 기록마저 깬 이 드라마는 다음달 3일 종영을 앞두고 시청률 50%를 돌파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방송분 시청률이 46%(닐슨코리아 전국 집계 기준)로 또 한 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해 50% 진입을 눈앞에 뒀다. /박권현기자

kwx0427@metroseoul.co.kr

배우 김영호 '가수 데뷔'

부활 김태원에게 곡 받아

김태원(왼쪽)과 김영호.

배우 김영호가 부활 김태원과 손잡고 생애 첫 음반을 발표한다.

케이블 채널 엠넷은 18일 "김영호가 김태원의 곡을 받아 다음달 미니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엠넷이 진행하는 협업 프로젝트 '콜라보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엠넷은 매월 기성 뮤지션과 비뮤지션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음원을 만드는데, 2월 주인공으로 김태원과 김영호를 선정했다. /박권현기자

50세	60세	70세
월7,570원	월12,600원	월41,810원

(남자, 1인당 기준)

(남자, 1인당 기준)

치매 간병비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중증치매간병비 5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부가서비스:간병 도우미 1회 3만원 (연 5회)
치매담보 가입자가 중증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 사용하는 경우

7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지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644-9265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 (중증치매)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69세	6,270		50세	1,110	2,950	190	90
			60세	8,010	14,270	320	150
			70세	35,040	71,220	500	370

※가입연령: 50~70세 [illegible]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될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 절차없이 최대 90세까지 (7대 질병 수술비는 80세까지) 연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 2천만원을 진단 즉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IV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암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7대 질병 수술비 5백만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577-6429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5세	6,270		30세	2,280	7,030	1,200	520	750	270	530	250
			40세	6,780	17,570	2,730	800	1,380	530	1,000	400
			50세	17,180	21,390	8,620	6,410	2,280	890	1,810	850

※가입연령: 15~65세 [illegible]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될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박정민 "낮과 밤 180도 달라요"

日서 1인2역 콘서트 투어

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일본에서 1인 2역 콘서트 투어를 개최한다.

다음달 19일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21일 오사카, 22일 도쿄, 23일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제프 투어를 진행한다. 각 지역에 위치한 제프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1000~15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이지만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필수 투어 코스로 알려져 있다.

박정민은 나흘간 하루 2회씩 총 8회 공연을 연다. 낮 공연은 가수 박정민으로 [illegible] 글로벌 프로젝트인 로미오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팬들과 만난다. 소속사는 "박정민과 로미오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와 이미지의 두 아티스트로 다른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민은 지난해 9월 로미오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정식 데뷔했다.

/유순호기자

용준형 뮤직드라마 주인공

비스트 용준형이 '꽃미남 스타 제조기' 김원석 PD의 차기작에서 타이틀롤을 거머쥐었다.

엠넷은 "용준형이 4월 방영될 뮤직드라마 '몬스타'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이달 말 첫 촬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 그룹 '맨인블랙'의 보컬 윤설찬이 기획사의 근신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는 송중기·유아인을 스타덤에 올린 '성균관 스캔들'의 김원석 PD가 엠넷 이적 후 만드는 첫 작품이다. '아랑사또전'의 정윤정 작가와 영화 '늑대소년'의 촬영팀이 가세해 완성도를 높인다.

/권보람기자 kwon@

JYJ 김재중

슈퍼주니어-M

태국 1만팬 홀린 남자들

슈퍼주니어-M·JYJ 김재중 주말 잇따라 공연

태국 방콕의 주말이 K-팝 열기로 달아올랐다.

슈퍼주니어-M과 JYJ 김재중은 16일과 17일 각각 선더돔과 비이텍홀에서 차례로 공연하고 총 1만여 팬을 불러모았다.

슈퍼주니어-M은 '2013 슈퍼주니어-M 팬 파티 브레이크 다운 인 방콕'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첫 팬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수록곡들을 부르고 멤버별 개별 무대를 선사하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공연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태국 관련 퀴즈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과 기념사진 촬영 등 콘서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팬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5000여 관객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이벤트로 멤버들을 감동시켰다.

슈퍼주니어-M은 팬 파티에 앞서 15일 시암파라곤 야외 무대에서 기자회견과 팬 사인회를 개최해 수천 명의 팬들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김재중은 '유어, 마이 앤드 마인 인 타일랜드'라는 이름의 공연으로 5000여 팬을 사로잡았다.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가 결합된 행사로 1부는 김재중과 함께하는 퀴즈쇼·게임·요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2부는 솔로 앨범 수록곡을 부르는 공연으로 채워졌다.

관객들은 최근 출시된 김재중의 솔로곡 '원 키스'를 한국어로 따라 불렀고, 능숙한 한국말로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며 열렬히 호응했다. 관객들은 '[illegible]'라는 한국어 글자판을 일제히 들어올리는 이벤트를 펼쳤고, 김재중은 5000여 팬 모두에게 막대사탕을 나눠주며 이에 보답했다.

공연 전 기자회견에는 60여 개 매체가 참석했고, 전날 공항 입국장에는 새벽 시간에도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장수 비결, 열정에 충실" "액션 연기, 몸 허락하는 한"

시간차 내한' 저메키스 감독·성룡 인터뷰

할리우드와 홍콩을 각각 대표하는 감독과 액션스타가 같은 날 공개될 자신들의 신작 홍보를 위해 공교롭게도 또 같은 날 오후 2시간 간격으로 내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28일 개봉할 '플라이트'의 로버트 저메키스(61)와 '차이니즈 조디악'의 연출자 겸 주연 성룡(59)이 18일 서울 콘래드호텔과 롯데호텔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났다. /조성준 홍승효기자 when@metroseoul.co.kr

로버트 저메키스 성룡

▶ 장수 비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잘 만들었을 뿐 - 저메키스 감독은 '백 투 더 퓨처' 시리즈와 '포레스트 검프' 등으로 무척 낯익은 '흥행 제조기'이자 1995년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에 빛나는 명장이다.

이 영화는 '폴라 익스프레스' 등 디지털 특수효과를 활용한 영화 연출에만 전념하던 그가 '캐스트 어웨이' 이후 12년 만에 실사영화로 돌아온 작품이다.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살던 비행기 기장 휘태커(덴젤 워싱턴)가 추락 일보 직전의 비행기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시착시킨 뒤 겪게 되는 고민을 그리고 있다.

저메키스 감독은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은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같은 주제와 소재의 시나리오를 찾다 보니 실사영화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영화는 열린 결말으로 주목받지만 결정 무성이인 한 인간의 도덕적인 애매모호함을 얘기한다"고 밝혔다.

첫 내한 계기와 부침 많은 할리우드에서 30년 넘게 정상을 지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다. 장진 감독의 영화 두 편을 봤는데 무척 좋았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열정적으로 최대한 잘 만들려 노력한 결과"라고 답했다.

▶ 액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 나이를 잊은 화려한 액션 연기를 보여준 성룡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액션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19세기 후반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약탈당한 청나라 황실 정원 원명원의 12간지 청동상을 되찾으려는 보물 사냥꾼 JC로 나와 온몸에 바퀴를 달고 질주하는 '바기블레이드' 롤러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산에 활화산 입구에서 촬영할 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죽는다면 정말 장렬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가수들을 보면 마이크를 내려놓고 은퇴한다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는데 몇 년 후에 다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보면 싫었다"며 "초대형 액션 영화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액션 연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중 파트너 사이먼으로 출연한 권상우의 투지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유일하게 장애가 된 부분은 언어였고 나머지는 완벽했다"며 "촬영 중 발목 부상을 당해 스턴트맨 투입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직접 연기했다. 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성룡은 또 "이번 방한 때 한국 영화 시나리오를 받기로 했다"며 출연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파로티' 강소라 단아&섹시 강소라가 18일 종로구 한 극장에서 열린 '파파로티' 제작보고회에서 단아하면서도 은근히 섹시한 의상으로 몸매를 뽐냈다. 조폭 고교생 장호(이제훈)의 여자친구 숙희로 출연한 그는 "함께 출연한 한석규·오달수 두 선배님과 나이대를 맞추려 오늘은 20대 중반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면서 "극중에선 주로 교복 차림인데, 나이가 있으므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입어두려 한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조성준기자·뉴시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 Hello 인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서포트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좋은 아침이에요.
헬렌은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는 잘 지내요, 덕분에요.
오늘 저녁 기분은 어떠세요?
내일 만나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Good morning.
How is Helen?
She's very well, thank you.
How are you this evening?
See you tomorrow.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Good morning, Bill. 어떤가요 Helen?
B: She's fine, thank you.

정답: How's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s [Helen / Mr. Green]?
2. [Helen / Mr. Green] is very well, thank you.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instead of	~ 대신에	instead of Reading Gate 5 5번 탑승구 대신에
on schedule	일정대로	The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on schedule. 보수공사는 일정대로 완료될 것이다.
out of the reach of	~의 손이 닿지 않게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게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를 개의치 않고	regardless of previous experience 과거 경력에 관계없이
under warranty	보증 기간 중인	Your product is still under warranty. 귀하의 상품은 아직 보증 기간 중입니다.
with the exception of	~은 예외로 하고	with the exception of the new cars 신차들은 예외로 하고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Step 1] 질문을 듣고,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다.

Q: I was told that we will have **lunch at 1 p.m.** Is this right?

[Step 2] 정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중하게 말한다.

No(Not), actually.
No, you've got the wrong information.
No, I'm afraid not.
I'm sorry, but no.

[Step 3] 자료 속의 올바른 사실을 전달한다.

You will have **lunch at noon** in the banquet hall.

'날쌘돌이' 정근우 톱타자!

WBC 류중일 감독 낙점 · 좌타자 이용규 2번 유리

수비 연습을 하고 있는 정근우(오른쪽).

'날쌘돌이' 정근우(31·SK)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의 1번 타자로 낙점됐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17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오른손 1번 타자를 선호한다"며 정근우를 톱타자로 결정한 속내를 드러냈다.

좌타자인 이용규(KIA) 역시 1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자질을 갖췄지만, 팀 전지훈련을 소화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톱타자가 출루했을 때 우익수 방향의 팀 배팅을 위해서는 2번에 왼손 타자가 제격이라는 점도 정근우를 1번에 배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류 감독은 "1번 타자는 선구안이 좋아야 하고 상대 투수를 흔들 수 있어야 한다"며 톱타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완투수 윤희상(SK)의 낙마설에 대해 "SK 스프링캠프에서 타구에 오른팔을 맞아 불펜 피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 전 몸 상태를 체크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며 "차우찬도 허리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체 선수 없이 지금 멤버 그대로 최종 엔트리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WBC에 출전할 야구대표팀은 20일 최종 엔트리를 확정해 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

'담배 소동' 잠재우는 것은 실력뿐

이영미의 베이스볼 카페

지난 류현진이 미국 글렌데일의 LA 다저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첫날 담배 연기에 휩싸였다. 다저스의 담당기자가 기사를 통해 장거리 뛰기에서 거의 꼴지로 들어온 류현진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비꼰 것이었다.

미국 기자가 담배를 들고 늘어진 이유는 하나다. 60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간 동양인 투수에 대해 현지 미국 기자들은 '그만큼 돈값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흡연이 화제로 떠오르자 류현진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앞으로 야구로 실력만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었다. 미국으로 건너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데도 배짱 하나는 타고났다.

이번 담배 소동에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우선 한국식 훈련과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장거리 뛰기는 천천히 속도를 내는 편이다. 그러나 이날 다저스의 러닝은 전력 질주였다. 한국식 훈련에 익숙한 류현진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이런 차이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기자들은 비꼬기와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유하는 관중들에게 손가락을 펼었던 김병현이 이후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는 우리도 잘 안다. 6000만 달러짜리 류현진이 감당할 몫이다.

마지막으로 준비성이다. 해외 진출에 성사된 선수는 이적 계약을 하느라 신경을 집중했고 각종 어벤 행사도 많다. 겨울 훈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스프링캠프에서 살인적인 생존경쟁이 벌어진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 참가해야 한다. 미국 기자는 분명 이것이 거슬렸을 것이다. 해결책은 실력뿐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기성용 빠진 스완지 무기력

리버풀에 0-5 대패

기성용(사진)이 빠진 스완지 시티는 무기력했다.

스완지시티는 17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려 5골을 내주며 0-5로 완패했다.

기성용은 제혁 인해 지원에서 이날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스완지시티의 공식 트위터는 기성용이 편도선염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기성용을 포함해 미구엘 미추, 왕엘 랑엘, 네이슨 다이어, 웨인 라우틀리지 등이 이날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이클 라우드럽 감독은 팀이 5골을 내주는 동안 교체 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경기를 포기하는 대신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진출한 컵 대회 결승에 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설원 위 축제 '동계체전' 개막 눈과 얼음의 축제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8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 바이애슬론 초등부 경기에서 선수들이 설원 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문 시즌 첫 PGA 톱10

배상문(사진)이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배상문은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열린 노던 트러스트 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합계 8언더파 276타를 써낸 그는 헌터 메이헌(미국)과 공동 8위에 올랐다.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한 존 메릭(미국)과는 3타 차이로 올해 5번째 대회만에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노승열은 이날 2타를 줄여 공동 16위(4언더파)에 올랐다. 최경주와 위창수는 공동 33위(1언더파)에 올랐다.